

##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of Children and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in Rural Areas\*

정정화(Jung-Hwa Jung)<sup>1)</sup>

이강이(Kang-Yi Lee)<sup>2)</sup>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acculturation process of children and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can affect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concerned. The participants from each family consisted of the fathers, mothers, and school-age children of 179 househo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following:

(1) First, the multicultural children scored higher than the average in self-esteem in most areas except school life. Furthermore, the children and parents had a comparatively positive attitude toward acculturation (2) Second, the children's level of self-esteem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only with the acculturation of mothers as opposed to fathers. (3) Third, the impacts of acculturation of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on the children's self-esteem followed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the sub-areas of self-esteem. Specifically, the self-esteem for overall self-value and family relations rose when the

\* 이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3S1A5B8A0206805).

\* 본 논문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sup>1)</sup>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sup>2)</sup>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Kang-Yi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E-mail : kangyil@snu.ac.kr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others was high. However, area of peer relations was affected only by the acculturation of children. The area concerning school life was high when the mother-culture propagation attitude of mothers was low.

**Keywords** :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school-ag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자아존중감(self-esteem), 문화적응(acculturation).

## I. 서론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사회 내에 국제결혼의 비율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tatistics Korea(2012)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 간 전체 혼인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이 평균 10.5%를 차지했고, 이와 맞물려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은 전체 출산율의 4.7%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부부관계에 집중되어왔던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의 관심사는 점차 그들의 자녀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약 61%인 116,696명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으로 향후 수년 안에 학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급증할 예정(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3)임을 고려했을 때, 영유아기를 넘어선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Rosenberg(1989)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

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학령기는 아동발달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이 시기에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며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기표현을 잘하고 새로운 과제에 의욕적이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기표현을 주저하고 감정기복이 심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해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Allen, Hauser, Bell, & O' Conner, 1994; Anderson, 199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추론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총체적 평가로서의 자아존중감을 강조해왔으나, 취학 전 아동조차도 자아의 다양한 측면을 구별한다는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Harter, 1982) 자아존중감의 영역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으로 구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 양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이란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노출되거나 적응해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문화간 접촉의 결과 사회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Berry, 2006).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형성배경은 이들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문화적응 현상을 경험하게 한다. 이렇듯 문화적응 현상은 다문화가정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내 다문화관련 선행연구들은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 및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같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가시적 적응현상에 관하여 주로 다루어 왔다. 또한 일부 문화적응을 다룬 연구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같은 표면적인 문화적응 현상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을 뿐, 이들의 심리사회적 문화적응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점차 자신의 이중문화정체성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며 또래와 다른 외모 및 가정상황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적으로 학령기에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와 적응 및 또래관계 형성 등의 과업과 맞물려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im, 2008). 실제로 Berry(1997)와 Choi(2009), Shin(2007) 등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이중문화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될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이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 및 외면화 문제로 이어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응을 보이

고 있다는 Jung과 Woo(2007) 및 Park(2009)의 연구 등을 근거로 하였을 때, 이중문화 환경 자체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아동이 자신의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혹은 갈등요소로서 부정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이중문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는가 혹은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개념을 통해 아동의 문화적응 양상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율이 높다는 점(Ministry of Education, 2014)에서 아동이 다문화적 특성에 관한 주변의 편견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비해 외국문화 및 다양한 가치에 대한 교육 기회의 노출이 부족한 점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중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문화적응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찍이 다문화사회를 이룬 서구의 경우 문화적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화적응 다차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Berry의 문화적응모델에 따르면 문화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주류사회의 문화적응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경우, 고유문

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는 통합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문화적응 형태이다. 이와 더불어 주류사회의 경우 이주민의 원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이주민이 정착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형태의 문화적응태도를 보였을 때 이주민과 주류사회 모두 바람직한 문화적응을 이룰 수 있음을 그는 제안하고 있다 (Berry, 1974).

이러한 연구의 흐름 하에 국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바람직한 문화적응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부부가 상호간에 배우자의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다문화수용태도’와 자신의 문화를 배우자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자문화전달태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이중문화적응태도’라는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이 등장했다(Chang, 2007; Kim, 2011; Song & Lee, 2010). 이는 문화적응 현상을 이주민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관점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주민의 바람직한 문화적응형태라고 여겨지는 ‘통합’과 주류사회의 바람직한 문화적응형태라 여겨지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문화적응태도는 부부관계와 결혼적응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일부 주목을 받아왔다(Kim, 2011; Song & Lee, 2010). 그러나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은 비단 부부관계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바라보며 성장해가는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적응 양상을 ‘이중문화적응태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탐색하고, 이러한 부모의 문화적응 양상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영역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부모의 문화적응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유아기와 아동기에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고,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모방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Lee, 2004).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모가 보이는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는 아동이 이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중문화정체성을 가진 자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 양상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부족하다. 한편 이들 간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학령기가 갖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는 아동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며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확대되는 시기이나 이와 동시에 아직은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도 한 과도기적 시점이다(Woo, 2013).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삶의 영역이나 가족배경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들 간의 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다문화가정의 경우 이민자 집단을 형성하는 서구와는 달리 대다수의 경우 개인이 혼인을 매개로 하여 가족의 내부로 진입하고, 결혼 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강력한 성별 특징을 띄고 있다(Yang, 2013).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가족주의 가치가 강한 가정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Ok, Sung, &

Shin, 2002)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3세대 형태의 가족이 도시지역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한국사회 안에서 다문화가정의 특성 및 농촌지역의 가정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문화적응 현상은 서구와는 다른 한국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응 및 발달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 현상에 대해 탐색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79개 가구의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들의 초등학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성 중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지역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가 68명(38.0%), 베트남과 필리핀을 포함하는 동남아가 111명(62.0%)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81명(45.3%), 여아가 98명(54.7%)이었고, 1~3학년에 해당되는 저학년 아동이 77명(43.0%), 4~6학년에 해당하는 고학년 아동이 102명(57.0%)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표집되었다.

### 2. 연구도구

#### 1) 자아존중감 척도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1967)와 Pope 등(1988)의 연구를 참조하여 Choi와 Jeon(1993)이 우리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Mother's region of origin	Northeast Asia	68(38.0)	Length of a marriage	Under 10 years	34(19.0)
	Southeast Asia	111(62.0)		11~15 years	97(54.2)
Family type	Extended family	66(36.9)		Over 15 years	48(26.8)
	Nuclear family	113(63.1)	Monthly family income	Under 1.5 million won	102(57.0)
Children's gender	Boys	81(45.3)		Over 1.5 million won	77(43.0)
	Girls	98(54.7)	Children's grade	The lower grades(1~3)	77(43.0)
				The upper grades(4~6)	102(57.0)

나라 아동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한 사람의 자아존중감이 특정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Harter, 1982)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6문항)과 더불어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9문항),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9문항)과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8문항)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이란 총체적 자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가치 및 부모와의 관계의 원만성에 관한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또래관계에서의 자아존중감은 타인의 친구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학업 및 학생으로서 자신에 대한 유능함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역별로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을 낸 후에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의 신뢰도는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81, 가족관계 자아존중감이 .87,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88,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63 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9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미주거주 한인교포나 소수 민족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외연구(Hurh & Kim, 1990; Lee, 1994)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방식으로 Nho와 Hong(2006)이 변안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 문화 및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 의복, 문화활동 참여와 미래 거주 및 취학 희망정도 등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으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을 낸 후에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응답의 신뢰도는 .87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문화적응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문화적응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ang(2007)이 한국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문화적응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척도에 Song과 Lee(2010)가 어머니용 질문을 추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부사이에서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해가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수용태도와 자문화전달태도의 2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한다.

다문화수용태도 문항은 배우자 국가의 문화(음식, 언어, 생활방식, 풍습)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자문화전달태도 문항은 자국의 문화(음식, 언어, 생활방식, 풍습)를 배우자에게 알려주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는 다문화수용태도 7문항과 자문화전달태도 7문항을 포함하여 어머니용 질문 14문항과 아버지용 질문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형식을 따르며, 각 하위 영역별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후 평균을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이중문화적응태도의 신뢰도는 .86, 아버지의 이중문화적응태도의 신뢰도는 .90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조사에 사용될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 및 적

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2013년 8월 3일에 전라남도 해남군 다문화가정 체육대회에 참여한 30가구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다문화가정 아버지, 어머니, 아동용으로 나뉘어 구성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머니용 질문지의 경우 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출신국에 맞게 배부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발견된 오류들을 보완한 후, 2013년 9월 17일부터 한 달여의 기간을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문화가정 거점형 글로벌 선도 학교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14개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다.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고학년 아동과 부모용 질문지의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 편에 가정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 및 부모의 문화적응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문화적응태도와 자녀의 이중문화수용 및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분석

#### 1.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연구문제 1>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179)

Variables		Possible range of score	M	SD
Accultu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Father	Multicultural acceptance	3.15	.67
		Mother-culture propagation	3.25	.80
	Mother	Multicultural acceptance	3.85	.61
		Mother-culture propagation	3.13	.80
	Children	Bicultural acceptance	3.16	.41
	Self-esteem of children		Overall self-value	3.64
		Family relations	3.95	.70
		Peer relations	3.33	.78
		School life	2.95	.58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다문화수용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5점( $SD = .67$ ), 자문화전달태도는 평균 3.25점( $SD = .80$ )이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는 평균 3.85점( $SD = .61$ ), 자문화전달태도는 평균 3.13점( $SD = .80$ )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13점( $SD = .41$ )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전반적 자기가치 영역에서 평균 3.64점( $SD = .72$ ), 가족관계 영역에서 평균 3.95점( $SD = .70$ ), 또래관계 영역에서 평균 3.33점( $SD = .78$ ), 학교생활 영역에서 평균 2.95점( $SD = .58$ )로 나타나 이들이 학교생활영역을 제외한 영역 전반에서 양호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학령기 다문화가정 이동과 부모의 문화적응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문제 2>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은 아버지의 자문화전달태도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다문화 수용태도( $r = .33, p < .01$ )와 자문화전달태도( $r = .24, p < .01$ ) 및 아버지의 다문화수용태도( $r = .62, p < .01$ )는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문화적응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가 자녀의

<Table 3> Correlations among acculturation of children and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of the children

	1	2	3	4	5	6	7	8	9
Acculturation of parents	1. Mother's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1							
	2. Mother's mother-culture propagation attitude	.28**	1						
	3. Father's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5**	.51**	1					
	4. Father's mother-culture propagation attitude	.07	.46**	.62**	1				
5. Children'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33**	.24**	.24**	.11	1				
Self-esteem of children	6. Overall self-value	.20**	.11	.10	-.03	.54**	1		
	7. Family relations	.22**	.10	.03	-.03	.55**	.56**	1	
	8. Peer relations	.02	.04	.06	.01	.38**	.56**	.52**	1
	9. School life	.10	-.24**	-.02	.01	-.04	.12	.04	.26**

\*\*  $p < .01$ .



<Table 4> Correlations amo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acculturation and self 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1	2	3	4	5	6	7	8	9	10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family	1. Mother's region of origin	1								
	2. Family income	-.18*	1							
	3. Family type	-.15	-.01	1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children	4. Gender	.01	-.12	.07	1					
	5. Grade	-.22**	.03	.08	.07	1				
6. Children'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18*	-.10	-.03	.10	.25**	1				
Self-esteem of children	7. Overall self-value	-.12	-.03	-.11	.06	.08	.54**	1		
	8. Family relations	-.12	-.06	-.18*	-.02	.00	.55**	.56**	1	
	9. Peer relations	-.08	.07	-.14	-.06	.18*	.38**	.56**	.52**	1
	10. School life	-.19*	.27**	-.04	.02	.10	-.04	.12	.04	.26**

\* $p < .05$ . \*\* $p < .01$ .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 $r = .20, p < .01$ ) 및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r = .22, p < .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자문화전달태도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 $r = -.24, p < .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아버지의 문화적응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음 단계의 분석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아동의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출신국( $r = -.22, p < .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아동의 학년( $r = .25, p < .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가족관계 영역은 가족형태( $r = -.18, p < .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생활 영역은 어머니의 출신국( $r = -.19, p < .05$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가족의 수입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관계 영역은 아동의 학년( $r = .18, p < .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전반적 자기가치 영역의 경우,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 다음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 3.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1)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cculturation of children and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predicting overall self-value of the children

Independent variables	Overall self-value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Mother's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3	.20**	.02	.02
Children'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94	.54***
$R^2$	.04		.30	
Adj $R^2$	.03		.29	
$R^2$ change	.04		.26	
F	7.00**		37.02***	

\*\* $p < .01$ . \*\*\* $p < .001$ .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문제 3>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로는 앞서 연구문제 2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와 더불어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먼저 모형 1에서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 $\beta = .20, p < .01$ )는 자녀의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였다. 즉,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투입한 결과, 어머니 다문화수용태도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 $\beta = .54, p < .001$ )가 아동의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종속변수에 대한 추가 설명력은 26%이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설명변량은 총 29%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 2)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학령기 아동의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앞서 연구문제 2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가족형태와 함께 아동의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와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가족형태( $\beta = -.18, p < .05$ )는 아동의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였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 $\beta = .21, p < .01$ )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cculturation of children and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predicting children's self-esteem of family relations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of family relations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Family type	-.27	-.18*	-.26	-.18*	-.24	-.17**
Mother's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5	.21**	.05	.04
Children'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92	.54***
$R^2$	.03		.08		.34	
Adj $R^2$	.03		.07		.32	
$R^2$ change	.03		.05		.26	
$F$	6.21*		7.62**		29.38***	

Note. Dummy variable: Family type (Extended family = 0, Nuclear family = 1)

\* $p < .05$ . \*\* $p < .01$ . \*\*\* $p < .001$ .

의 영향력이 유의했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추가 설명력은 5%였다. 이 때 가족형태( $\beta = -.18, p < .05$ )는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 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총 설명력은 7%였다. 즉, 어머니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며, 가족형태가 3세대인 경우 아동이 가족관계에 대해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모형 3에서는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 $\beta = .54, p < .001$ )와 가족형태( $\beta = -.17, p < .01$ )순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가족형태가 3세대이며 아동이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아동이 가족관계에 대해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6% 증가하였으며, 총 설명력은 32%이었다.

### 3)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앞서 연구문제 2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아동의 학년과 함께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투입하였다. 부모의 이중문화적응태도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절의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아동의 학년( $\beta = .18, p < .05$ )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였다. 모형 2에서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투입한 결과,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 $\beta = .36, p < .001$ )와 아동의 학년( $\beta = .09, p < .05$ )순으로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고, 이 때 종속변수에 대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cculturation of children and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predicting children's self-esteem of peer relations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of peer relations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Children's grade	.29	.18*	.15	.09*
Children'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69	.36***
R <sup>2</sup>	.03		.16	
Adj R <sup>2</sup>	.03		.15	
R <sup>2</sup> change	.03		.12	
F	6.10*		16.25***	

\* Dummy variable: Grade of children (The lower grade=0, The upper grade=1)  
 \*  $p < .05$ . \*\*\*  $p < .001$ .

한 추가설명력은 12% 증가했으며 총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수준이 높고 고학년일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cculturation of children and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predicting children's self-esteem of school life

Indendent variables	Self-esteem of school life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Family income	.28	.24**	.24	.21**
Mother's region of origin	-.18	-.15*	-.14	-.12
Mother's mother-culture propagation attitude			-.12	-.16*
R <sup>2</sup>	.09		.14	
Adj R <sup>2</sup>	.08		.13	
R <sup>2</sup> change	.09		.05	
F	8.87***		7.60***	

\* Dummy variables: Monthly family income (Under 1.5 million won = 0, Over 1.5 million won = 1), Mother's region of origin (Northeast Asia = 0, Southeast Asia = 1)  
 \*  $p < .05$ . \*\*  $p < .01$ . \*\*\*  $p < .001$ .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문제 2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가정월소득 및 모 출신지역과 함께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어머니의 자문화전달태도를 투입하였다. 아동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절의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가정월소득( $\beta = .24, p < .01$ )과 어머니의 출신지역( $\beta = -.15, p < .05$ )은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대해 8%의 설명력을 가졌다. 모형 2에서는 가정월소득( $\beta = .21, p < .01$ )과 어머니의 자문화전달태도( $\beta = -.16, p < .05$ )순으로 아동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느끼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또한 이 때 모형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3%으로 모형 1에 비해 5%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즉, 가정월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어머니의 자문화전달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대해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령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인 자아존중감에 주목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179가구의 아버지 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영역을 제외한 영역 전반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Hwang과 Ko(2013) 및 Lee(2008) 등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으며, 양호한 수준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경제적 빈곤 문제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기 비하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Lee(2010)의 연구라든가, 이들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Seol 등(2005)의 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보다 많은 기초자료의 구축과 함께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심층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조부모의 돌봄이 아동으로 하여금 가족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를 높이고, 가족 안에서의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느끼는 이질감이나 차별이 적을 것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중간 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다소 저조한 학업성취를 보였다는 An(2008)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적응 양상을 살펴본 결과, 먼저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문화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 아버지는 배우자의 문화를 수용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문화전달태도를 더 많이 취했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본국의 문화를 남편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어머니만이 모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해왔고, 앞으로도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 및 부모의 문화적응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부모의 이중문화적응태도 중 아버지의 자문화전달태도를 제외한 전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적응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상호 간의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문화적응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이중문화적응태도만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는 아동의 전반적 자기가치 및 가족관계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문화적응은 긍정적인 자녀 양육으로 연결되며(Kim, 2010),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다시금 자녀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연계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중문화적응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Chung(2014)은 보다 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을 보고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통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지배적인 농촌지역의 경우, 문화적응과 별개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자녀 특성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영역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기가치와 가족관계 영역의 경우, 어머니의 다문화수용태도와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영향을 받으나 상대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에는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영역의 경우, 부모의 이중문화적응태도의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반적인 자기가치, 가족관계, 또래관계 영역의 경우 부모의 문화적응보다는 아동 자신의 문화적응 양상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아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에 기인하는 결과일 수 있다. 즉, 가족의 영향력은 별개로 학업 및 또래관계에서의 성취경험과 교사나 또래와 같은 중요한 타인의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아동이 자신의 이중문화 정체

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외에도 아동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생활 영역의 경우, 아동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정월소득과 어머니의 자문화전달태도가 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정월소득이 아동의 학교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는 점(Gottfried, 1984)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문화전달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은, 어머니의 학교참여나 학습지도 등이 아동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교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문화를 자녀에게 전달하려는 태도 또는 노력은 자녀로 하여금 외국인으로서의 어머니를 부각시킴으로써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교생활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Dornier 등(2007)의 연구에서 아동들이 두 가지의 문화를 오가고 두 가지 언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지적 융통성을 기를 수 있고 이에 따라 학업적 유능성도 뛰어남을 보고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주로 한국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한 노출빈도나 활용도가 낮기에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생활과 관련한 이들의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특히 아동의 문화적응과 발달을 서구사회에서 바라보는 문화적응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Berry의 문화적응이론에서는 모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주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통합 유형을 이주민의 가장 바람직한 문화적응 형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문화적응태도가 학령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외국 출신의 어머니가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수용태도는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인 자기가치와 가족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문화전달태도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문화적응과는 별개로 외국 출신 어머니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내재되어 있고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노출이 부족한 한국 사회의 경우, 그들의 자녀인 학령기 아동이 외국인으로서의 어머니보다는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또래동조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아동기에 '다름'에 대한 인식은 아동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어머니의 문화를 보다 성숙하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아동기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인지, 혹은 이러한 패턴이 아동기에 국한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문화적응태도 또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tkinson, Morton과 Sue(1998)가 제시한 소수민

족 정체감 형성 모델에 따르면 이주민의 원문화와 이주문화에 대한 태도는 이주기간에 따라 변화한다. 즉, 이주 초기에는 새롭게 이주한 국가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원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주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 평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주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문화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모델을 이 연구의 대상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형태 또한 정착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문화적응 역동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어머니의 이주 기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시간 체계적 접근을 통해 살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전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상황이 상이한 타 지역의 경우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현재 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역사가 길지 않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적응 및 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일반화에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년 안에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자아존중감 등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도울 기초자료를 확립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정되어왔던 문화적응이라는 연구주제를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아버지와 자녀에게도 확대 적용하였다는 점과 가족 단위의 표집을 통해 부모의 문화적응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시사점은 한국 사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 Conner, T. G. (1994). Longitudinal asse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9-194.
- Anderson, M. (1999). Children in-between: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bicultural family.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5*(1), 13-26.
- An, H. R. (2008). Academic achievement and peer attachment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CA: McGraw-Hill.
- Berry, J. W. (1974). Psychological aspects of cultural pluralism: Unity and identity reconsidered. *Topics in Culture Learning, 2*, 17-22.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 adap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2006).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3), 697-712.
- Chang, O. J. (2007). A study on marital-lif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ried Korean 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B. G., & Jeon, G. Y. (199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inventory」 (I).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1(2), 1-54.
- Choi, S. H. (2009).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ose in the areas of Daejeon and Chungcheung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Chung, G. (2014). Involvement in child care among Korean fa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Child Studies in Asia-Pacific Contexts*, 4(2), 127-136.
- Dorner, L., Orellana, M. F., & Li-Grining, C. P. (2007). "I helped my mom," and it helped me: Translating the skills of language brokers into improved standardized test score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13(3), 451-478.
- Gottfried, A. W. (1984).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Ha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2-97.
- Hurh, W. M., & Kim, K. C. (1990). Correlates of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11), 703-711.
- Hwang, S. Y., & Ko, J. U. (2013). A study on the school adaptation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8, 97-117.
- Jung, H. S., & Woo, R. (2007). *Social adjustment status and program development for 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G. S. (2008).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Youth Culture Publishes Forum*, 18, 58-95.
- Kim, H. S. (2011). A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S. H. (2010). The effect of mother's acculturation on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y: Parenting as medi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6), 95-115.
- Lee, E. H.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ir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 Lee, J. B. (2010). *An analysis on state of education from multicultural children and supporting policy*.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Lee, K. S. (1994). Korean american cultural identification: Effects on mental str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Arizona, USA.

- Lee, Y. H. (2009). A study on an effect of attachmen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o raise multicultural children's adaptation for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2014). *Statistic for state of multicultural student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3). *Foreign resident status data*. Seoul: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Nho, C. R. (2000). Use of Rosenberg's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as predicting variables fo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0(1), 107-135.
- Nho, C. R., & Hong, J. J. (2006).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127-159.
- Ok, S. W., Sung, M. A., & Shin, K. Y. (2002). A study on the family and kinship value in urban and rural famili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9), 1-17.
- Park, S. H. (2009).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9, 125-154.
- Pope, A. W., McChale S. M., & Craighead, W. E.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1004-1018.
- Seol, D. H., Kim, T. H., Kim, H. M., Yoon, H. S., Lee, H. K., Yim, K. T., et al.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hin, H. J. (2007).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J. H., & Lee, T. Y. (2010). A study on marital adjustment factors among multicultural coupl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0(2), 164-192.
- Statistics Korea. (2012). *2011 Multicultural population statistics*. Seoul: Statistics Korea.
- Woo, S. J. (2013).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and children's peer attachment on mobile phone dependen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1(6), 583-590.
- Yang, H. A. (2013). Experiment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aking place in the family. *Justice*, 134(2), 298-335.

---

Received September 30, 2014

Revision received November 17, 2014

Accepted December 15, 2014